JOBSSCHOOL / FIELD WORKBOOK

학교 이름보다 먼저, 나의 길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완성하는
학교 선택 실행 워크북

관심의 근거 · 학교 비교 · 작은 실험 · 7일 계획

© 오늘과내일의학교 | 편집 검토본 1.0

사용 안내: 완성보다 발견

각 장은 읽기, 기록하기, 확인하기, 실행하기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끝내려 하지 말고 며칠에 나누어 쓰세요. 빈칸이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표시하는 것도 중요한 결과입니다.

학생이 먼저 자기 생각을 적고, 보호자는 질문과 현실 조건을 보태는 방식을 권합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르면 한쪽을 지우지 말고 나란히 기록하세요. 학교의 학과·교육과정·모집 요강·통학 정보는 바뀔 수 있으므로 이 책의 기록만으로 최종 판단하지 말고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1. 오늘 가장 궁금한 것 한 가지

2. 읽기를 잠시 멈추고 더 알아볼 질문 한 가지

차례: 나를 알고, 길을 시험하기

1–4쪽은 선택의 원칙과 현재의 출발점을 다룹니다. 5–8쪽에서는 관심의 증거, 가족 조건, 학교 정보 확인법을 익힙니다. 9–10쪽은 서로 다른 가상의 사례를 통해 선택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봅니다.

11–15쪽은 작은 진로 실험과 7일 실행 계획입니다. 16쪽은 학교 방문 질문, 17쪽은 가족 대화, 18–20쪽은 관심 증거·경로 비교·생활 조건 활동지입니다. 21–24쪽에서 근거를 바탕으로 잠정 결정을 정리하고, 다음 행동과 정보 업데이트 방법을 살펴봅니다.

1. 먼저 펼쳐 보고 싶은 장을 표시하세요.

선택의 기준: 학교보다 하루를 먼저 그리기

학교를 비교할 때는 이름의 인상보다 그곳에서 반복될 하루를 상상해 보세요. 어떤 과목과 실습을 하는지, 혼자·함께 일하는 시간이 어떻게 섞이는지, 결과물을 만들 기회가 있는지, 통학과 생활이 감당 가능한지를 차례로 살핍니다.

기준은 네 묶음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배움의 내용(무엇을 배우나), 배움의 방식(어떻게 배우나), 생활의 조건(어디서 어떻게 다니나), 다음 단계(졸업 후 어떤 선택지를 탐색할 수 있나)입니다. 아직 모르는 항목은 점수를 주지 말고 '확인 필요'로 남기세요.

1. 나에게 꼭 필요한 조건 세 가지

2.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조건 두 가지

3.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조건 한 가지

관심은 말보다 흔적에서 찾기

'좋아한다'는 말은 출발점이지 결론은 아닙니다. 무엇을 자주 찾아보는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해 본 일이 있는지, 어려워도 다시 시도한 일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수업 과제, 취미, 가족을 도운 경험, 온라인에서 만든 작은 결과물도 모두 관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경험이 직업 적성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반복된 행동과 구체적인 상황을 기록하면 관심의 방향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었던 점뿐 아니라 지루했던 점, 막혔을 때의 반응도 함께 적으세요.

1. 최근 몰입했던 활동과 그때 실제로 한 행동

2. 힘들었지만 계속한 일과 계속하게 한 이유

3. 다시 해보고 싶은 경험

관심을 확인하는 증거 노트

관심 분야를 하나 정했다면 '나는 이 분야를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을 작은 질문으로 바꾸세요. 예를 들어 그림에 관심이 있다면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수정하는 과정도 좋아할까?'라고 묻습니다.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있다면 '오류를 찾아 고치는 반복 과정도 견딜 만할까?'처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관찰한 사실과 해석을 나눠 기록합니다. '두 시간 동안 그림을 고쳤다'는 관찰이고 '나는 디자인 분야에 맞다'는 해석입니다. 해석을 사실처럼 단정하지 않으면 다음 실험이 더 정확해집니다.

1. 내가 세운 관심 가설

2. 그 가설을 지지하거나 의심하게 한 관찰

3. 더 확인해야 할 점